第241回國會
(臨時會)

2010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7月29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101號)

議事日程

1.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

審査된案件

1.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김용학 위원 외 4인 서면동의) ····· 7

(16시38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국회(임시회) 제6차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李秀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張誠源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나가신 것 같으니까 들어오시면 회의 도중에 인사하도록 하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金龍學 위원께서 동의한 金雲龍 IOC위원의 국내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의제로 성립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25일 金龍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서면으로 동의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만 각각 3분씩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고 당사자이신 金雲龍 위원님께서는 모두에 3분, 최후에 3분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金雲龍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신 MBC TV 방영문제에 관해서는, 첫째로 그 시간이 45분으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서 본 의안 결정에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섞여 있어서 金 위원님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녹취한 내용을 신상발언할 때 발언하도록,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양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金雲龍 위원님의 발췌 녹취록은 현재 제출되지 않고 다만 테이프와 관계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녹음테이프와 관계 자료들을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金雲龍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張誠源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學元** 張誠源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委員** 죄송하지만 앉아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셨던 李昌馥 위원님께서 오늘 사임하심에 따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명에 따라서 제가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張誠源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이 대단히 원만하고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말씀하세요.

○張誠源 委員 위원장님, 지금 국회의원(金雲龍)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우리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상정되었습니다.

○張誠源 委員 제가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우리 당의 간사이신 咸承熙 위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咸承熙 간사위원께서는 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라서 안건의 상정은…… 지금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

○張誠源 委員 안건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퇴권고결의안을 처리하시는 것도 의사일정인데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咸承熙 간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 양당 간사, 다시 말하면 咸承熙 위원과 金龍學 위원을 포함한 간사회의를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의제로 채택된 것을 오늘 처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상정해서 각 위원들이 3분 내로 의견을 발표하고 또 당사자는 모두에 3분, 최후에 3분 신상발언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합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안상정 문제는 위원장의 직권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위원들이 3분 동안 의견개진을 하고 또 당사자가 3분, 3분 도합 6분 동안 신상발언을 한 후에 표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모두 다 상정을 전제로 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委員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를 열기로 한 본 위원과 위원장의 합의는 의사일정에 나온 대로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처리를 합의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당초 특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전제가 뭐였습니까? 당리당략의 문제를 떠나서 위원 각자의 소신에 의해 金雲龍 위원이 과연 평창특위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도 우리 위원이고 그 문제를 제기 당한 위원도 우리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명쾌하게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말하자면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관련자들을 참석시켜 조사를 하고 또 관계문서를 들여다보는 절차는 거쳤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이 나있지 않은 차제에 우리 위원회는 지원특위라는 한시적 특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7월 말로 위원회의 운명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의혹만 잔뜩 부풀려 놓고 아무 결론도 안 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결론을 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냄에 있어서 지난번 위원회 때 金龍學 위원이 느닷없이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것을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몇몇 한나라당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의 신상발언이나 다른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나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자동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회의를 연 것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한 국회의원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느닷없이 그렇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논거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옳은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본 다음에 위원회에 계류된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 것인가, 사퇴권고를 결의할 것인가 아니면 윤리위에 제소할 것인가 또는 윤리위 회부 문제를 특위 위원장이나 의장의 권한으로 권고 정도 해 둘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여기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 이런 것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각 위원들이 너무 길게 상호 공박하는 토론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실컷 다 한 것이니까 한 3분 범위 내에서 각자 소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해당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자, 그렇게 하자는 데 대한 방법론에 합의를 했지 사퇴권고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합의를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위원회가 내일 모레 자동으로 끝날 것을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문제를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사퇴권고결의안은 金龍學 위원이 일방적으로 제출해 놓고 몇 사람이 찬성한다 어쩐다 하면서 박수 치다가 다 시간 바쁘다고 나가서 자동 유회된 그 안건이 공식 안건으로 왜 상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의사표시 전달과정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서로 의미해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映宣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선 당사자의 한 분인 金龍學 간사께서 오늘 간사회의를 했던 내용에 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사 간에 합의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인데……

○金映宣 委員 지난번 회의 때 상정한다고 방망이 두드리지 않았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일단 金龍學 간사께서 오늘 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金龍學 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오늘 간사회의 내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3분 발언 후에 최후에 金雲龍 위원께 신상발언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표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표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표결할 것 뭐 있습니까, 새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한 표결입니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咸承熙 委員 金龍學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저 안건이 될지 또 우리 위원들 중에 저것 아닌 다른 안건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두고 표결할지는 얘기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저것 하나의 안건만 가지고 표결한다는 결론을 냅니까?

○金龍學 委員 제가 발언 중이니까 잠깐 계세요.

○咸承熙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어의 문제 아닙니까?

○金龍學 委員 지금 이 회의를 방청하는 사람이나 기자나 다 오늘 제가 제의했던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관해 표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회의 때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 각자 3분 발언기회를 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결한다, 여기까지 얘기된 것입니다. 여기서 뭘 더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또 새로운 안건을 전제로 해서 표결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합의를 했습니까?

○金映宣 委員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예.

○金映宣 委員 여기 계신 모든 방청객과 기자분들, 위원님들이 다 증인이다시피 지난 회의 때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金龍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동의했고, 그때 咸承熙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표결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이에 다시 정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위원장이 이미 별다른 이의 없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다시 되돌아가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회의 저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회의 때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물은 후에 金龍學 위원께서 金雲龍 국회의원의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구두로 정식 제의했고 이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쳐 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려고 할 때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결국 산회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3시에 양당 간사들을 불러서 이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당한 당사자에게 모두에 3분의 신상발언을 주고 최후에 3분을 주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각 위원이 3분씩 의견을 진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표결하도록 하는 것,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말도 분명히 나왔고 그 안을 표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었다고 하면 金雲龍 위원의 신상발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선후 절차를 다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 이 의안상정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제에 관해 굳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만 간단하게 2~3분 내로 거친 후에 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정회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金龍學 위원이 제안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

○咸承熙 委員 그러니까 다른 위원 몇 분이 동의했지요? 그것만으로 적법하게 상정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의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의해 주고 말고가 없잖아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의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 의안뿐만 아니라 오늘 이 회의에서는 위원들 한 분 한 분 말씀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새로 출석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 중에는 이 의안이 아닌 다른 의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 역시도 다른 의안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의안을 내서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적법하게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위원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한 분씩 다 의견을 얘기하게 하면 아마도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다, 공통분모가 나오면 표결도 필요 없이 나온 결론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표결을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퇴권고결의안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회의가 시작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 안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제 얘기는 의안상정은 위원장의 전권입니다. 다만 양당 간사들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들과 협의한 것인데 이 의안은 지난번에 구두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金龍學 위원 외 4인의 명의로 서면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굳이 상정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5분이든 2분이든 양당 간사하고 협의한 후에 속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咸承熙 간사께서는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세요.

○咸承熙 委員 협의에 관계없이 지난번의 행위로 이미 적법한 의안 상정이 되었다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것 가지고 따질 것은 없고 제 얘기는 새로운 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지 이 의안만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새로운 의안이 상정되려면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의안이 채택된 후에 이 회의에서 상정할 것인지 여부는 간사 간에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해야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이 안건을 결정한 후에 새로운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敬天 委員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간사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간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사를 교체해 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 두세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映宣 委員 아니……

○委員長 金學元 위원장에게 물은 것이니까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아니, 우리 당 간사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글쎄,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니까 위원장이 답변한다니까요.

○金敬天 委員 공정하지 않잖아요. 문제제기한 사람이……

○委員長 金學元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金敬天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사는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간사를 해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에게는 자기가 소관된 위원회와 관계된 내용, 국무위원이든 관리든 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기했다고 해서 간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金龍學 위원이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金龍學 위원에게만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사자인 金雲龍 위원의 발언은 막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회의진행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회의든 간에 金雲龍 위원에게 허용되는 한 최대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었고 또 반대신문의 권한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金龍學 위원이나 金雲龍 위원이나 공평성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사해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金敬天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張誠源 委員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의사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회의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권고결의안을 내놓음으로써 바로 안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건이 회부된 다음에 위원장이 상정할 때는 반드시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시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다시 말씀드려서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옳으신 말씀입니다.

○張誠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咸承熙 간사님한테 거듭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원장이 이 안건을 가지고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우리 당의 간사와 협의한 후에 안건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한 후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張 위원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참석하셔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안을 상정해서 의사봉 3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의안상정하기 한 시간 전에 양당 간사 간에 의안상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의안상정을 전제로 해서 상정된 후에 각 위원들은 의견을 3분씩 얘기하고 당사자인 金雲龍 위원의 모두발언 3분, 최후발언 3분 신상발언을 끝낸 다음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관해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까지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상정 자체뿐 아니라 상정한 후의 후속절차까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협의뿐만 아니라 완전 합의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상정에 관한 협의가 없다고 주장하시겠다면 지금

정회를 해서 양쪽 간사들과 단 몇 분간이라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咸承熙 간사와 張誠源 위원님께서 상정된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협의가 아니라고 굳이 얘기하신다면 구태여…… 저는 협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굳이 주장하신다면 지금 협의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咸承熙 委員 좋습니다.

협의를 하겠는데요, 애당초 이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저 아닙니까? 제가 할 때는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전에 어느 한 위원이 느닷없이 그냥 공직사퇴권고결의 쪽으로 몰고 가니까 우리 위원회가 파행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 위원들 중에 상당 위원들은 '그것 응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어차피 숫자로 뻔한 건데 뭣하러 응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위원회가 파행이 되어서……

○委員長 金學元 가부만 말씀하세요.

○咸承熙 委員 잠깐 계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대단히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우습게 되니까 우리 모두 모여서 각자 어떻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지 3분에서 5분씩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마 그 말의 정리 과정에서 비록 한나라당 위원이라도 사퇴권고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민주당 위원 속에서도 사퇴권고결의가 옳다고 사건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어느 하나로 집약되면 표결이고 뭐고 깔끔하고 보기 좋게 끝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로 집약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립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좋은 의견이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그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부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을 내가 하게 됐다면 그것은 내 표현의 미숙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의도와 내 표현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

○委員長 金學元 咸 위원!

내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양 간사 간에 협의를 안 거쳤다고 주장을 계속 하신다면 지금 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咸承熙 委員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각자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진행하도록 가부간에 결론을 내달라니까요.

○張誠源 委員 위원장님과 咸承熙 간사님 사이에 말씀 나누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사소통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張誠源 委員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3분 발언을 드리고 또 신상발언을 드리고 거기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

○委員長 金學元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 신상발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표결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張誠源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니,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張誠源 委員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委員長 金學元 간주가 아니라 상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張誠源 委員 그런데 우리 咸承熙 간사님은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거쳤

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정회를 하신 다음에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어떻습니까, 咸 간사님께서는 협의를 거치겠습니까?

○張誠源 委員 거치셔야지요, 안 거치셨다는데……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양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위원님들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지요.

양당 간사께서는 잠깐 옆방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한 결과 본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은 상정을 하되 또 다른 하나의 안건이 나올 때는 이 결의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안건의 성립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마쳤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김용학 위원 외 4인 서면동의)

(17시17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金龍學 위원께서 동의한 金雲龍 IOC 위원의 공직사퇴 권고 결의안이 의제로 성립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25일 金龍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서면으로 추가로 동의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 건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각 3분씩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당사자인 金雲龍 위원께서는 모두에 3분 그리고 최후에 3분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고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金雲龍 위원께서 방영을 요청하신 MBC TV에 방영되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췌를 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雲龍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3분으로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해명하러 나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나보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특위 위원인데 궁금한 것이나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하든 뭐하든 좋다고 해서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해명을 할 기회를, 나는 양심에 비추어서 해명할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갑자기 하면서 테이프 정도는 봐도 되지 않나 생각했고 또 마침 테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특위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입니까, 아니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허황된 근거 없는 말로 주장만 하면 그것 가지고 숫자놀음 속에서 그냥 누구를 조사하는 특위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회 지원에 실패했으면 다 같이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우연히 MBC TV를 보니까 윤강로가 친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캐나다의 파운드 위원에게 MBC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찍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보던데 이 세상에 자기 나라 찍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위 선양하고 봉사한 것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질의에만 답변하라는 식이어서 내가 위원장의 권위를 존중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MBC에서 캐나다의 파운드 위원한테 “찍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냐?”고 하니까 “NO” 하더라고요. 그것도 “NO” 했고 유치위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니까 그것도 “NO” 했습니다.

다음에 또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李完九 위원께서 아틀란타에도 오셨었지만 IOC 위원들이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소극적으로 할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서 득표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북한의 장웅 위원도 거기에 나와서 말하

던데 IOC 위원들은 윤리규정에 의해서 찍는다 안 찍는다, 지원한다 지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특위위원들이 잘 몰라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당황스러운 질의도 많이 받았지만 IOC 내부 역학관계 같은 것은 밝힐 수 없지만 다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충분히 친절하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소극적이냐 방해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란치 위원장이 코리아 타임즈에서 IOC 집행위원 선출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했고 소극적으로 했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한국 스포츠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그러느냐, 소극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 덕에 표가 그만큼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제1 부위원장인 독일의 토마스 바흐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분도 도시하고 그 후에 있은 집행위원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토론토의 파운드하고도 모스크바에서 같이 선거에 나왔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IOC 위원들 이름 들먹들먹하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장웅 위원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 관계 없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 투서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나라의 IOC 위원을 그렇게 하면 참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외신 다 들려드렸지 않아요! 워싱턴포스트와 USA TODAY에서 아랍, 아세아, 남미의 표밭이 전부 움직여서 그만큼 나왔다고 했고 요미우리신문도 53표 중의 48표가 金 위원 때문에 나왔다고 했고 USA TODAY는 평창의 변수는 金 위원이 모스크바 선거 때 가지고 있던 표밭을 얼마나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 다 프리젠테이션 때 평창을 꼭 지원해 달라고 호소한 것, 이번에 프리젠테이션할 때 내 말이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MBC를 보니까 평창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두 번이나 있었고 로게 위원장도 전혀 관계 없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태권도를 올림픽에 넣고 월드컵 따고 올림픽도 했지만 동계올림픽을 한국에서 꼭 한번 해야 하겠다고 해서 용평동계아시안게임의 조직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IMF 때 그것 성공시켜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만큼 했는데 IOC 위원이 거기에서 그거 합니까?

그리고 끝나고 KBS 김한수 기자가 유치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놓은 것 보니까 본인이 스물아홉이고 삼성이 아홉이고 셋이 박용성이고 나머지 열이 유치위원회, 강원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파운드 위원 말씀은 드렸고 이제 장웅 위원에다가 IOC 위원들 말씀은 다 드렸는데 제가 조사위원회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하려면 지금까지 나는 지원해 주는 IOC 위원이지 유치의 주체는 아니에요. 유치위원회 몇 백명이 몇 백억도 쓰고 몇 년간 차타고 다니기도 하고 대한체육회도 몇 십억 쓰고 돌아다니고 강원도도 몇 십억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들도 돌아다녔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조사해야지요. 정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해서 IOC 위원들의 표를 분석하든지 하세요. 득표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확실하게 해 놓은 서른 몇 표는 문화관광부장관과 강원도 지사한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마는 명단은 다 밝힐 수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자 이거예요.

또 거기에 얹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도 잘 하고 특위위원들도 활동하신 것 아닙니까? 또 공략가능한 표 40명과 우리를 적대하는 표 30명에 대해서도 孔魯明 위원장과 강원도 지사에게 수시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언제 내가 2014년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것은 밴쿠버가 하고 다녔지요. 6월에 나온 한국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40표는 해야 1차를 통과하는데 나 혼자는 60표를 할 수가 없다, 60표를 하려면 1차에 내가 20, 30 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40표를 얻어서 통과하고 2차에 보태서 60표를 얻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허황되게 들뜨게 해서 나중에 나자빠지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지난번에는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조금 설명하기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을 지금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준다고 했

는데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위선양을 한 자기 나라 IOC 위원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내가 평창을 찍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얼굴을 밟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극적이니 뭐니 하는데 내가 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대구 유니버시아드에다가 용평 동계아시안게임 위원장까지 했고 월드컵, 88, 86, 부산아시안게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나의 꿈이 꼭 관광, 레저, 동계 이런 것 다 할 수 있고 다음에 남북평화에도 이바지하고, 거기에서 장웅 위원과도 핵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책임하게 이런 일들을 해서 중상모략, 근거 없이 하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민사, 형사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물어 보실 것이 있으면 일문일답도 좋고 또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하고 싶으면 모든 기관에 대해서 돈 쓴 것, 책임…… IOC 위원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경기단체도 다 돈 쓰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되는 것은 전부 나 혼자 책임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본인 말씀대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넘겨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체토론은 하지 않고 대신에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3분 내로 집약해서 개진하도록 한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셔서 3분 내로 요약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金龍學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 委員 우선 우리 동계특위에서는 회의를 열면서 가능하면 IOC 내부문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IOC 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상 외로 우리 金雲龍 위원께서 직접 파운드 위원의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파운드 위원님께서 'NO'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테이프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대놓고 물었을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다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 동안의 동계오륜특위를 통해서 金雲龍 위원님의 언행이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방해가 되었는가를 파악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金 위원님의 언행이 명백한 2010 동계오륜 유치 방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金 위원께서는 IOC 부위원장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고 이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의 여망과 국가 이익을 배신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라하 IOC 총회 하루 전날 高建 국무총리와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의 IOC 부위원장 불출마 요청에 대해서 金雲龍 위원께서는 출마 선언한 사실이 없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 총리와 장관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했고, 7월 4일 본 위원이 金 위원의 유치 방해행위를 국내에서 거론한 이후에도 金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金 위원께서는 적어도 지난 5월 이전에 자신의 IOC 부위원장 출마선언과 지지부탁 편지를 동료 IOC 위원들에게 발송하였음이 드러나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서 IOC 위원들에게 부위원장 출마와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인정하셨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을 너무도 당당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또 金 위원께서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예정에 없이 부위원장 출마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雲龍 위원께서는 IOC 부위원장 당선을 위해서는 2010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 이후 평창유치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심지어는 청와대 오찬 시 盧武鉉 대통령 면전에서도 버젓이 재수, 삼수론을 거론했고 4월 30일 이 동계오륜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IOC 위원들에게 평창을 찍지 말라고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이 특위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金雲龍 위원님의 언행으로 보아서 특별히 신기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와 장관에게 거짓말을 하셨고 또 유치활동을 격려하시는 대통령 면전에서 재수론, 삼수론을 거론하신 분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명예, 권력 그리고 높은 지위에 높은 분들에게는 특별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金위원의 언행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金雲龍 위원님의 언행이 金 위원님의 현 직위, 직책, 명예 등에 비추어 정치적·도덕적·윤리적으로 타당한가를 金 위원님 본인 스스로 판단하라는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IOC 위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시는 金 위원님께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도덕적·윤리적 판단을 스스로 하라는 이런 결정을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하고 계신 金 위원님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 현출된 진술과 사실관계만으로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저의 견해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金雲龍 위원님께서도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공개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스스로 주장해 오신 큰 사람의 모습을 전 국민들 앞에 보이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답변해 드릴까요?

○委員長 金學元 나중에 모아서 최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金雲龍 委員 난 지금 답변 좀 해야 되겠어요.

○委員長 金學元 金 위원님,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을 상 싶어서 모두에 신상발언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최후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되도록이면 金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어 가지고 나중에 최후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雲龍 委員 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것도 나중에 모아 가지고 하면 제가 각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雲龍 委員 아니, 다른 분은 다른 분이고 나는……

○委員長 金學元 석명하는 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석명인지, 질의·응답 토론이 되어 가지고 이 회의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나중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측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張誠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張誠源 委員 우선 평창올림픽을 근소한 표차로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우리나라에 유치하지 못한 것, 특히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지 못한 것, 저는 작년 예산안 심의하면서 평창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 배려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진대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셨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특히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강원도 평창을 사랑하시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정말로 깊이 분노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金龍學 위원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하십니다마는 또 金雲龍 위원님 당사자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 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金雲龍 위원님께서 아닌 말로 君子李下不整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은 없으신지 저는 우리 金雲龍 위원님한테 반성의 기회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국제스포츠외교가 한 분, 우리가 사실 金雲龍 위원님만한 인물을 배출하려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을 더군다나 사법적인 재단도 아니고 정치적인 도의적인 윤리적인 재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제1당 아닙니까? 제1당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의원을 더군다나 거듭 말씀올립니다마는, 국제스포츠외교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金雲龍 위원님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관대하게 진상과는 별도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올리는데 어디까지나 이 위원회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金雲龍 위원님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정 하신다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과연 해야 할 일인지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감정적이랄까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아닙니다, 의원을 권고사직 결의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신다든지, 저는 金雲龍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에 가셔서 어떻게 그 결과가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張誠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映宣 위원,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金映宣 委員 저도 張誠源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오기 전에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작은 에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도 그동안 그래도 국제체육계에 이룬 업적, 앞으로 이 정도 업적을 이룬 어른이 계시는 것이 한국의 체육계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창유치위원회는 金雲龍 위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계를 했고 그 많은 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다 신중히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金雲龍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조절해 갔다는 증언들을 했고요. 또 실제로는 金雲龍 위원의 상급자로서 전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高建 총리나 李滄東 장관까지 나서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金雲龍 위원을 제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기로 유명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孔魯明 위원장이나 관련 외교관들도 당신이 그러면 당신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를 하겠는가 했을 때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金雲龍 위원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좋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공직임무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기본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동원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익에 등 돌린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高建 총리나 李滄東 장관이나 모든 행정부가 갔는데 지금 국가의 행정부가 무기력 상태에 있다, 그리고 관계 집행부서도 무기력 상태에 있다, 체육계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무기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려를 하시는 분은 비겁하거나 또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끝까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에 등 돌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한국의 위기상황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것에 있어서 바른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용단을 내리고 그래서 이것이 金雲龍 위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무엇인가 새로, 바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횡행할 것이고 사회기강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이

것은 당을 떠나서 개개인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결국 국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映宣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의 의견개진이 있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상황을 규명하는 일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특위가 그야말로 조사특위인가 지원특위인가 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치 인민재판처럼, 마녀사냥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이는 우리 정치인의 모습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점이 많습니까?

메달리스트의 전당 회원들이 낸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스포츠를 더 이상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접했습니다. 저도 100%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보다도 더 지켜보았을 사람들이 그 메달리스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말해야지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金雲龍 위원이 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돌이켜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金龍學 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는 데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까?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차질 없이 큰 나무를 단 순간에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는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것 일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여야가 정말로 감정을 죽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국민이 당리당략이고 숫자놀음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그리고 정말 냉정하고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다수의 횡포다' 하는 오명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식히고 냉정하게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지역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런 오류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느 한 사람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敬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崔燉雄 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雄 委員 오늘 우리 특위가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위 위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특위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金雲龍 운영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정말 아쉽게 좌절이 되었습니다마는 좌절된 데 대해서 그동안 도하 신문이나 언론기관에서 많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강원도민들은 특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3조 원이 넘는 막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열악한 까닭에 아직도 복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강원도 도민들은 그나마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더라면 그 희망을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됨으로써 도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金敬天 위원님께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다수당에서 잘 해 달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일자 민주당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원도 의원들한테 제발 강원도민들의 한을 풀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이야기는 좀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우리 특위 활동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으로 김 위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전략적인 그러한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 오늘 이 특위에서 강원도 도민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시원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히 金雲龍 위원을 평소에 존경하고 상당히 따랐습니다. 과거에 무주와 평창 문제가 났을 때 우리 강원도 의원들이 갔을 때 당연히 눈이 많은 평창에서 될 것인데 무얼 걱정하느냐 해놓고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IOC 부위원장으로 나가시겠다는 얘기도 이미 독일에서 나오는 Sport Intern 4월호에 부위원장으로 나오시겠다고 각 IOC 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꼬리를 물고 부위원장으로 나오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金雲龍 위원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또 부위원장에 당선이 됩니까? 그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또 강원도 도민들에게 한 맺힌 이 서러움을 풀어주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崔燉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당 측의 咸承熙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었더라면 국민화합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발전을 10년은 앞당겼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비단 본 위원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200만 강원도민의 안타까움이고 또한 온 국민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활동 과정에서 누군가의 방해행위 내지 국익을 제쳐두고 사리사욕을 앞세운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3표 차이의 실패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올림픽지원특위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지만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인 金龍學 위원이 같은 위원 중의 한 분인 金雲龍 위원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폭로행위가 일파만파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모든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로 합의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진상규명특위에 준하는 진상조사활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은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동료이면서 선배이시기도 한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은 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첫째, 金雲龍 위원이 IOC의 차기 부위원장 피선이라는 개인적 영달 내지 사욕이 앞서서 2010년 평창 유치활동에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결국 3표 차이의 안타까운 패배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金雲龍 위원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문제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지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선출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어느 한 나라에 주지 않아 왔다는 IOC의 그동안 관행과 高建 총리를 비롯한 많은 유치활동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본인의 부위원장 포기 선언이 평창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金雲龍 위원 본인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이를 거절하면서 끝내 평창의 유치 실패 다음날 부위원장에 선출된 사실, 그밖에 국내에서 일부 유치관계자들에게 '2010년 평창 유치는 어렵다'는 등의 의사 표시를 하면서 부위원장 선출에 집착을 보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金雲龍 위원이 IOC 차기 부위원장 당선이라는 개인적 영달 내지 사욕이 앞서 2010년 평창 유치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결국 3표 차이의 안타까운 패배결과를 가져 왔다는 사실과의 다소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둘째, 더 나아가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 선출이라는 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2010년 평창 유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Don't vote for Pyeong Chang'이라는 언동을 하면서 평창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까지 방해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유치결정이 있던 2003년 7월 2일 당일 저녁 자크 로게 위원장 주최 리셉션장에서 캐나다의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우리 측 유치부위원장인 崔萬立 부위원장에게 '안됐다. 金雲龍 위원이 新 金雲龍派인 3인의 IOC 위원들에게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崔萬立 부위원장의 진술과 Sport Intern 기사 중 유치 결정에 불리한 기사들만을 모아 놓은 기사모음집이 해외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전송되었는데 이를 金雲龍 위원 측에서 배포한 의심이 든다는 주장 등이 이와 같은 사실에 부합되는 듯 하나 崔萬立의 진술은 崔萬立과 金雲龍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전문진술일 뿐만 아니라 원 진술자인 캐나다인 딕 파운드 IOC 위원조차도 우리나라 모 언론사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崔萬立의 진술만으로 적극적인 방해언동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Sport Intern 기사모음집은 그 날짜 표시가 국내 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金雲龍 위원 측이 작성해서 배포하였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 선출이란 사욕에 집착하던 나머지 적극적으로 2010년 유치활동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밖에 달리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 선출이란 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는 적극적 유치 방해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金雲龍 위원은 평창 유치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결국 3표 차이의 안타까운 패배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IOC 부위원장 선출이라는 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2010년 평창 유치에 반대하는 적극적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개인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金雲龍 위원은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공식적인 진상규명특위도 아니고 어떤 위원의 신상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또는 본 특위의 위원장 명의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는 비단 金雲龍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의 똑같은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의 차기 선거나 또는 지역정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동행위가 과연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또 다른 국익을 뒷전으로 한 채 당장 눈앞에 닥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咸承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金容鈞 委員 金雲龍 위원이 발언하실 차례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金容鈞 委員 제가 그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金容鈞 委員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대국입니다.

金雲龍 위원 외에도 李健熙·朴容晟 위원 등 대외적인 스포츠 강국임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IOC 위원들이 3명이나 있는 대국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문제가 IOC 부위원

장 선거와 맞물려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金雲龍 위원과 제가 평소에 아끼고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 咸承熙 위원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金雲龍 위원이 이번 유치활동 과정에서 소극적·미온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관계 증언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극적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증언 등과 정황으로 볼 때 3표 차로 패배한 상황에서 완전히 이 문제를 우리가 덮고 가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과연 金雲龍 위원의 공직 사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물론 논의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결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과정에서 미온적인 활동을 하고 유치 노력이 미흡하게 보인 그 점에 대해서, 또 그러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 金雲龍 위원께서는 적절한 사과와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고,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의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이름을 제 생각에는 '金雲龍 위원 사과 및 유감표시 요구 등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또 내용도 金雲龍 위원이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한 유감과 사과를 표시하는 것을 선행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2010년 올림픽은 놓쳤고 남아 있는 것은 2014년, 지금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놓고 통곡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동단결해서 다시 평창의 재수를 위해서 총단결하여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 내용을 다소 완화해서 사과 및 유감 표시를 요구하는 등의 결의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金雲龍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雲龍 委員 신상발언하기 전에 아까 몇 가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밝히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 씨의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됐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인이 거론한 게 아닙니다. 라키 윤하고 崔萬立이 거론해서 본의 아니게 파운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에서 본인한테 물어봐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고 한국 대표단하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런 게 비디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 高建 총리하고 李滄東 문광부장관이 출마를 포기…… 그때 후보도 아닌데 포기해 줄 수 없느냐 했을 때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요청하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수차 밝혔습니다. 아침식사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견해의 차이인데 IOC 내부의 우리 지지세력은…… 지금 정치에 있어서도 계보가 그렇지요. 자기 리더가 힘이 없으면 안 따라오지요. 그러면 사마란치를 비롯한 모든 우리 지지세력은 '후보도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표가 전부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득표지요. 득표 60표 해서 이기는 게…… 여기에서 소극적, 적극적 무슨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60표를 꼭 얻어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졌을 때는 2014년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최대의 성적을 올려 놓아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바깥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몰라도 내부의 세력은 '그런 행동을 취할 때는 표가 전부 내려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高建 총리하고 李滄東 장관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호소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때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아시아에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경험도 있고 나도 보장하고 남북문제도 해결됐고 하

니까 꼭 평창에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마지막에 2번이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로게도 굉장히 잘 했다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高建 총리가 11시에 사마란치 종신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게 득표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高建 총리에게 해서 그걸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자꾸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러고…… '내가 표를 더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하겠지만 사마란치 위원장하고 11시에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보다 내막을 더 잘 아니까 어느 쪽이 좋은가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끝낸 거예요. 거부하고 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위원님들한테 6월에 여러 신문이나 외국하고 한 인터뷰한 기사를 전부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재수·삼수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니고 밴쿠버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5월에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1차에 40표를 꼭 얻어야 하는데 나 혼자만으로 안 되고…… 60표를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IOC 위원들, 대한체육회, 평창유치위원회 500명 전부 같이 해서 40표를 만들어서 2차까지 딜을 해서 꼭 통과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했어요. 국민을 들뜨게 해서 여수처럼 나가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뭘 가져왔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항상 사회지도층이라는 게 여론도 대비하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가자빠지지 않고 다음 2014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흔히 지도자로서 대비시킬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곡해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부위원장 어쩌고 하는 것은 아사히 신문 7월 3일, 4일자를 한번 보세요. 7월 3일까지 부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전부 그랬는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부위원장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아시지만 여기 운동할 필요 없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그 얘기는 내 부역학 때문에 늘 있었다는 것을 늘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金映宣 위원께서도 高建 총리께서 얘기했고 孔魯明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孔魯明이 IOC 위원입니까? 내부를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득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견해의 차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득표를 하나라도 더 많이 하기를 노리는 것이지 무슨 쇼하고 리셉션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No problem!' 그러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득표내용을 도지사하고 장관한테도 다 수시로 알려주고 孔魯明한테도 어느 정도를 공략할 수 있나 이것을 수시로 알려줬는데, 그것을 진짜 밝히려면 IOC 위원들을 앉혀놓고 하든지 전부 비공개로 위원들 이름까지 다까 가지고 누가 몇 표를 했나, 어떤 상태에 있었나를 여기서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고 못 가게 하면 내가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崔燉雄 위원께서 홍수가 있고 무슨 3조원의 복구사업이 어쩌고 해서 실망 어쩌고 하시는데 누가 평창 유치를 원하지 않아서 안 뛰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복구사업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이지 강원도의 희망뿐입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것까지 여기에 갖다 대고 무슨 국민여론…… 국민여론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지고 하는 건데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委員長 金學元 조금 전에 金容鈞 위원님께서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면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안을 수정안처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택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토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택하지 않고 공개사과를 하는 것을 원하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권고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안으로 제안을 하시면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윤리위 제소 안건은 왜 의안으로 얘기를 안 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윤리위 제소 안건문제는 국회

법상 위원장의 직권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咸承熙 委員 우리가 위원장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委員長 金學元 예, 윤리위 제소는 위원장의 직권사항이지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도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의 가부가 결정된 뒤에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면 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金容鈞 委員 제가 발언한 내용을 조금 명료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원(金雲龍)사과및유감표시요구등결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안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현재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공직사퇴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金雲龍 위원이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그치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공개사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해 주시고 새로 공개사과요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咸承熙 委員 어느 결의안 말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공직사퇴권고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아까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닙니다. 지금 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이미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상정되어 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로 통과하는 것이고 만약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咸承熙 委員 나는 아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의가 있는 거지요?

○咸承熙 委員 예, 이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을 할 때 찬반의 의사내용을 그 속에 담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채택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바 이의가 있으신 위원들이 계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찬반토론은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112조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12조에는 표결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관해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투표기기가 고장나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로 무기명표결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12조에 의해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龍三 委員 위원장, 표결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간사들에게 각 당의 의견이 어떤가를 물어보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막판까지 몰고 가 가지고서 위원장이 딱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들으세요.

사전에 일부 위원들께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5분의 1 이상이면 4명 이상이니까 4명 이상이 요구를 해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의 咸承熙 간사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만약 지금 이 시간에라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다면 무기명투표를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요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입니까?

○李龍三 委員 여기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세 분인데 또 없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李龍三 위원까지 3명 있습니다.

咸承熙 위원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咸承熙 委員 이것은 무기명으로 할 필요 없이 기명으로 하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3명만 무기명투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무기명투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金敬天 委員 위원장님, 저도 왔습니다.

반대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반대입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또한 아까 윤리위원회 심사여부에 관해서 권고결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계셨고, 공직사퇴권고결의를 하지 말고 공개사과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개사과로 처리를 하고 공직사퇴권고결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안은 현재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咸承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咸 위원께서 지금도 그것을 제의하실 생각입니까?

○咸承熙 委員 예,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으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金敬天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金敬天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咸承熙 위원께서 위원장인 저로 하여금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 등을 위해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을 일단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찬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찬성한 것은 그것이 공직사퇴권고안이기 때문에 金雲龍 위원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킨 이상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진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윤리위원회에 가게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따지게 되고 또 더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신 咸承熙 위원님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것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또 金雲龍 위원께도 더 힘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咸承熙 委員 어느 것이 본인한테 짐을 더 주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저 아니고도 다른 많은 법조인이 계시지만 저는 과거에 법조인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형벌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재판에 준하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사실을 주장하고 그 나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고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어떤 것을 한다든지……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것은 법적기속력은 없는 결의안인 것 같지만 사실 '국회의원 배지 떼라, 어떻게 당신이 국회의원을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로 金雲龍 위원에 대해서 '당신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그만둬라', 이런 결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고도의 사실 인정과 증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과 거기에 따라 여론재판식으로 한쪽으로 몰고 나가는 모양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결의안은 결의안이라고 치고 적어도 윤리위에 가서, 윤리위원들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이라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정도면 주장된 사실을 밑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아니면 '그것은 증거로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벼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제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퇴권고결의보다 더 강한 처분도 그 속에 있습니다. 윤리위 최종처분은 제명처분까지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의원으로서는 사형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하는 마당에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윤리심사를 요구하고 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 제157조에 국회의장과 위원장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대해서 이것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결의안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조사에 참여해 왔고 참고인이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 왔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국회법 규정을 살리셔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完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學元 말씀하시지요.

○李完九 委員 방금 전에 金映宣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검토해서 공직사퇴결의안을 통과는 시켰습니다. 그러나 金雲龍 위원은 IOC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장차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金雲龍 위원의 기여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국민 화합이라든가 장차 우리나라의 체육강국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嚴虎聲 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국회법 제112조에 나와 있는 제2항의 '중요한 안건'이냐, 아니면 제5항에 나와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해서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63조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법적 구조를 가진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이것이 인사에 관한 안건이냐, 아니면 일반 안건이냐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국회에서의 국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 등 이런 사퇴권고결의안은 모두 다 일반안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지 인사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문제는 무기명투표든 기립표결이든 간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표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뒤에 가사 100%를 양보해서 거기에 절차상 일부의 하자가 있다 하

더라도 이 문제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언급을 해 주시지 말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委員 국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 같은 것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있었습니다.

○李源炯 委員 우리는 방금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위원장의 직권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또 권고하기 위한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 권고결의를 의결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새로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께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혹시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오히려 또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咸承熙 위원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위원장님,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법적 의미도 없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나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어떤, 권고결의도 법적 기속력은 없지요. 그러나 저 정도의 안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엄청난 잘못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 이런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가혹한 결의안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저 결의를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주장과 거기에 밑받침되는 증거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고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에 깊숙이 개입했던 의원이 아닌 제3의 객관적 의원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 해서 보니까 정말로 더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거기는 최악의 경우 제명처분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아까 얘기한 공개사과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수준도 있는 것이고, 그런 합당한 징계처분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등등을 주는 의미에서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 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본인이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 개인으로서는 본인한테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委員長 金學元 예, 알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할지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실을 좀더 객관적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인정된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알겠습니다.

咸承熙 위원님 말씀의 진의를 제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장의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계자의 증언들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결과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윤리심사나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金雲龍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국회에서 논의할 여지가 없어지고 맙니다.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징계 요구나 윤리심사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오랜 동안 숙고한 끝에 오늘 이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金雲龍 위원께서 이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더 기다려 봤다가, 이 위원회 시한이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달 31일 12시까지 金雲龍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사퇴권고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제가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윤리심사 또는 징계 회부 등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들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체육계의 단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속히 국론이 하나로 집결됨으로써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충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강원도민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오늘 결정을 계기로 관용의 지혜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결의안】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

<주 문>

金雲龍 의원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본인의 IOC부위원장 출마를 위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함으로써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등 국내 주요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동의이유>

金雲龍 의원은 IOC위원과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IOC부위원장 출마를 위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제115차 IOC총회(2003.6.29 ~ 7.4 체코 프라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주요인사의 증언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즉, 金雲龍 의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한 제115차 IOC총회 이전은 물론 기간 중 "평창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며, 2014년에 개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외국 IOC위원과 우리 측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한 바가 있으며,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후 개최된 IOC주최 리셉션에 참석한 최만립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고 함)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외국의 모 IOC위원으로부터 "金雲龍 위원이 평창에 투표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나라에 두개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IOC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金雲龍 의원의 IOC부위원장 출마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金雲龍 의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IOC부위원장 출마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金雲龍 의원의 행위로 결국 IOC부위원장이라는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정에서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金雲龍 의원이 IOC총회 전날까지도, "부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이전인 금년 4월 "IOC부위원장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IOC위원들에게 보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金雲龍 의원은 IOC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孔魯明 유치위원회 위원장 및 金振兢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집행위원장에게 독일의 스포츠 격주간지인 '스포츠 인테른(Sport Intern)'지의 대주주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정기구독을 하게 되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평창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며 동 잡지의 구독을 요구하여, 결국 동 위원회로 하여금 미화 약 2만불에 해당하는 동 잡지 100부를 1년간 구독케 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권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명투표 찬반위원 성명】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

투표위원(13人)

찬성위원(8人)

金暎宣 金龍學 嚴虎聲 元喜龍
尹景湜 李完九 李源炯 崔燉雄

반대위원(2人)

金敬天 咸承熙

기권위원(3人)

金容鈞 金學元 李龍三

○出席委員(16人)

金 敬 天　金 映 宣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雲 龍　金 學 元　嚴 虎 聲　元 喜 龍
尹 景 湜　李 完 九　李 龍 三　李 源 炯
李 海 鳳　張 誠 源　崔 燉 雄　咸 承 熙

○請暇委員(1人)

鄭 範 九

○委員아닌出席議員(2人)

鄭 義 和　洪 思 德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玄 誠 洙
전 문 위 원　孫 俊 哲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2010年平昌 冬季올림픽誘致特別	李昌馥	張誠源	새천년 민주당

(7월 29일자)